

올해로 종전 60주년을 맞이하였다. 과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으나 오랜 분단으로 통일에 대한 세대 간의 이해와 추구가 상이하다. 그럼에도 '분단국가'는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며 지금도 우리는 전사상형이다.

분단을 넘어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소장)

북한 체제의 미래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때문에 무너지길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을 개발하려면 예산 대부분을 군사비에 투자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민생경제 예산은 줄어들고 외국에서도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고, 결국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북한 체제는 붕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핵을 개발하면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을 안보 측면에서 완충지대로 생각해왔다. 즉, 남한의 미국 세력이 중국의 앞마당인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북한이 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잘못해도 감싸주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일본이 그것을 명분 삼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한국도 자위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게 되고, 이어 대만도 핵무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외에 일본, 한국, 대만까지 핵을 갖게 되면 중국로서는 핵을 가진 다섯 나라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이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 서면 중국은 북한을 버리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태도를 바꾸면 북한 붕괴는 시간 문제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북한이 망하면 통일이 될 것이라는 단순논리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네 단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김정은의 평가 어린 행보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 충질을 하든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또는 민중이 봉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급변 상황이 발생하면, 아프가니스탄이나 리비아처럼 내전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내전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단계가 올 것이고, 유엔이 앞장서서 평화유지군을 보내거나 미군 등 외국군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10만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저항세력을 진압한 후, 핵무기를 찾아 폐기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과도정부를 수립, 후속 정권을 세우야 한다. 이때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김일성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2의 공산 정권을 세우자는 것과 이번 기회에 민주 정권을 세우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대립할 때, 한국 정부는 민주정부를 세우는 쪽을 도와 북한에 민주정부가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정부 수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 내에 민주세력을 세울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 북한에는 민주세력을 세울 수 있는 5개의 그룹이

있는데, 첫째는 지하교회, 둘째는 탈북자 가족과 친척들, 셋째는 상인 집단, 넷째는 장마당 세대이다. 이들은 태어날 때 굶어 죽은 사람을 많이 보았고, 자기 부모가 장마당에 가서 사고파는 것을 본 세대로 주로 30대 이하이며, 김정은 정권에 별 미련이 없다. 마치 막 다식째 그룹은 해외에 유학을 다녀온 세력이다. 그런데 이들 그룹은 전혀 세력화되어 있지 않으며 세력화하려는 의식도 없다. 이들 중 그나마 지하교회 교인들이 민주화의식이 가장 강한 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하교회를 지금부터 도와 수적으로 성장시키고 주변 다른 세력과 규합하여 민주화운동 쪽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북한에 수립된 민주 정권은 한국 정부와 교류·협상을 통해 평화적 통합을 이루어가야 한다. 북의 민주 정권이 한국에 편입되도록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지하교회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차원을 넘어 북한에 민주 정권을 수립하고 남북통일을 이끌어내는 주도세력이다. 이것이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가치이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서두르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한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3년 후인 2016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학자들은 이때로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통일비용을 약 176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한다.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 외에, 북한의 재건을 위해 이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비용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편익'도 생긴다. 즉 독일로 인한 이득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에는 약 200종의 광물 지하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자산 가치로 환산하면 약 7000조 원 정도이다. 또 북한에는 질 좋은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 현재 개성공단의 노임은 72달러, 약 8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렴한 노동력이 어디에 있던 말인가? 그리고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8천만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독일, 영국, 일본처럼 경제발전의 추동력이 생긴다. 이렇게 남한이 가진 자본력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만나고 여기에 8천만의 인구가 결합되면 통일 한국의 경제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30년 후 통일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과 독일을 앞설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편익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익도 있다. 그것은 민족 복음화이다. 2400만 북한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또 남북한 성도가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갈 때,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기피할 일이 아니라 서둘러야 할 일이다.

통일은 갑자기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독일의 예는 이를 뒷받침한다. 1989년 봄 서독의 쿨 총리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언제쯤 독일이 통일되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못 볼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그 후 6개월 만에 동서독 통일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통일 후 남북한 교회의 모습

영적, 신앙적인 면에서 살펴보자. 여호수아 3-4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 강을 건넌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흐르는 물이 멈추며 벽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넜다. 이는 중국의 탈북자들이 예수 믿고 언약궤라는 말씀을 품고 북한 땅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 요단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7일째에는 일곱 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이것은 마치 오늘 날 30만의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김정은 왕국을 도는 것과 비슷하다. 머지않아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김정은 왕국, 평양성을 무너뜨리실 것을 확신한다.

평양성이 무너지면 북한 교회 재건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북한에는 무속신앙이 엄청나게 많다. 부적이나 점이 많고,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잔재도 남아 있고, 여기에 남한의 이단들도 들어갈 것이다. 또 남한 교회의 잘못된 폐색이 북한 교회에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의 전략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의 방해가 잦았다. 그래서 방비를 세워 이를 막는 한편 각 부족별로 작업구역을 할당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다. 이를 본받아 북한 교회 재건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

새로 탄생할 북한 교회의 모습

새로 탄생할 북한 교회는 성령공동체로 탄생해야 한다.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실크

로드를 따라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환란과 핍박 속의 지하교회의 간증은 놀랍고 충격적이고 신선한 감동을 줄 것이다. 처벌이 두려워 부모 자식 간에 예수를 전하지 못한 이야기, 처형 직전에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외치며 숨겨간 이야기, 찬송가 한번 실컷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한 그들의 간증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실크로드를 바이블로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1963년 8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 광장에서 인종 차별 없는 미국을 만드는 것이 자기 꿈이라는 연설을 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이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처럼 개인이든 민족이든 꿈이 있는 자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꿈이 있다. 첫째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북한이 변하여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 둘째는 백만 성도가 참가하는 대부흥 집회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리는 것. 셋째는 남북한 성도가 손을 맞잡고 실크로드를 따라가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복음 통일의 비전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